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비교 연구

원 립 립
(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최근 코로나19 사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사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논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인 정치 이슈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관련 기사 보도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중국 언론사의 보도문에서 국제관계 및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외교용어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중국 정치외교 용어의 번역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외교용어 특히 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내포하는 용어는 해당 국가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 사회문화를 반영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어 대 단어 식으로 번역한다면 그 국가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념을 잘못 전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민감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어 국제관계가 악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홍옌과 야오커친(楊紅燕, 姚克勤 2017: 62)은 ‘新型大國關係(new-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의 영어 번역을 예시로 거론한 바 있다. 이 용어는 중국 정부가 중미 간에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기사 보도에서 ‘大國’을 ‘major power’, ‘great power’, ‘The Group of Two (G2)’, ‘Chimerica’ 등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중국이 국력 상승에 따라 패권을 행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여론 형성 및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외교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번역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그것은 중-영 번역에 한정되어 있어 중-한 번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 한국 내의 관련 연구는 더욱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¹⁾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외교용어의 중-한 번역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중국 정치외교용어를 연구하려면 먼저 그 정의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추썩권(楚行軍 2019)은 ‘정치 발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의 정당(政黨) 건설 이념에 관한 표현 ‘打鐵還需自身硬(it takes a good blacksmith to make good steel)’의 영어 번역을 연구하였으나 ‘정치 발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밖에 리미한과 두안첵(李美涵·段成 2015), 동멍나(董蒙娜 2011)는 각각 ‘정치 언어’와 ‘정치 어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우징(吳靜 2014: 95)은 ‘정치 신조어’를 “중국의 정치 생활에서 나오는 어휘나 표현으로 정치적 관점이나 정치적 현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로 중국 국가 내부의 정책이나 방침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는 외교 이념에 속한 어휘인 ‘韜光養晦(도광양회)’도 함께 다루었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어휘는 그렇지 않은 어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 신조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외의 연구는 주로 외교 상황에서 사건이나 행위, 외교 이념이나 사상, 외교 정책, 영토나 영유권 등 관련 어휘나 표현을 연구하였다.²⁾

-
- 1) 정치외교용어에 관한 연구에는 김한식(2010), 문윤희(2010), 조신(2021), 최영란, 유곤(2021) 등이 있으며 연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 2) 양밍썩, 장옌(楊明星·張琰 2020), 양밍썩(楊明星 2014), 궈야오썩(郭耀軍 2021), 인동썩, 리슈메이(任東升, 季秀妹 2021), 쟡자썩, 관룽썩(姜嘉慧, 關榕珍 2018), 양밍썩, 옌다이(楊明星, 閔達 2012), 양밍썩, 조위치안(楊明星, 趙玉倩 202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치 분야에서 다루는 어휘나 표현에 대하여 ‘정치 발화’, ‘정치 언어’, ‘정치 어휘’, ‘정치 신조어’, ‘외교 언어’, ‘외교 용어’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점이다. 다만 이들 연구를 통해 정치외교용어의 유형을 정리해볼 수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다룬 정치외교용어의 유형을 첫째, 중국 국내 정치 맥락에서 사용하는 용어³⁾, 둘째, 국가교섭 맥락에서 등장하는 용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국가교섭 맥락에서 등장하는 용어는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 특정 행위나 사건을 묘사하는 용어, 외교 사상이나 이념을 설명하는 용어, 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용어 등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정치외교용어의 가장 큰 특징인 민감성⁴⁾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정치외교용어를 ‘정치 및 외교 상황에서 민감하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용어’로 새로 규정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유형 중 두 번째 유형, 이 중에서도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와 특정 행위나 사건을 묘사하는 용어가 특히 민감하고 이 정의에 부합해 보인다. 이로써 본 연구는 위 정의에 따라 정치외교용어를 추출한 뒤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정치외교용어의 유형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용어를 범주화한다.

국제적 정치 사건을 알리는 중요한 매체이자 사람들이 정치 이슈를 가장 쉽게 접하는 매개체로서 온라인 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대표 언론사의 한국어판 사이트 세 개, 한국 대표 언론사 세 개를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중국 정치외교용어⁵⁾의 한국어 대응어⁶⁾ 표현을 비교 고

- 3) 주로 국가나 중국공산당 내부의 정책이나 방침, 당정 건설 이념 등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四个全面(네 개의 전면 전략, 즉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 전면 심화개혁, 전면 입법치국, 전면 중업치당)’. 이는 ‘一帶一路(일대일로)’ 등 외교 정책에 속하는 대(對)외부 정책과 구별된다.
- 4) 궈야오원(郭耀軍 2021)는 ‘민감성’이 정치외교용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밝혔다.
- 5) 본 연구에서 중국 정치외교용어라고 부르나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의 경우 중국 영토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도 다루므로 중국의 것과 관련된 정치외교용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6) 대응과 등가에 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등가와 대응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해석이론 학자들은 등가와 대응을 양분하여 서로 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윤창숙 2022: 297).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한 본 연구에서

찰함으로써 한중 언론사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어 대응어 표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아울러 번역의 품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정치외교용어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는 온라인 뉴스를 꼽을 수 있다. 본고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 대상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중 한국어판을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를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외교용어를 추출하였다. 인민망 한국어판, 신화망 한국어판, 중국망 한국어판, CRI ONLINE 한국어판이 여기에 해당된다. CRI ONLINE은 한국어에 비해 북한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 세 가지 사이트의 국제면 및 정치면에서 최근 1년 간(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보도된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대상으로 용어 선정을 하되, 번역 양상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된 시간 이외 과거에 보도된 뉴스까지 검색해서 해당 한국어 대응어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세 개의 뉴스 사이트에 모두 검색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선정된 정치외교용어들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과거에 보도된 뉴스를 확인한 것이다.

한국 언론사의 경우 YTN, 한겨레,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기간에 보도된 뉴스에서 해당 정치외교용어들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을 살펴보았다. 설정된 기간 내 양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검색창을 이용하여 과거의 뉴스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이들 세 개의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와 언론사의 성향을 모두 고려하였다. 최진호, 박영흠(2022)에 따르면 한국 주요 언론사 15개 중 YTN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또한, 언론사의 성향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국내 대표 종합 일간지 중에 한겨레와 동아일보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이들을 연구 대상

제시한 예시들이 등가 관계를 이루는 것도 있고 이루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본 연구는 등가어와 대비되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한국어 번역어 자체를 지칭하는 ‘대응어’ 개념을 사용한다.

으로 선정함으로써 언론사 유형⁷⁾ 및 성향에 따른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크게 용어 추출, 용어 분류, 예시 분석이라는 세 연구 단계를 거쳤다. 우선 분석 대상 뉴스에서 본 연구가 규정한 정치외교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용어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한 용어들을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와 특정 행위나 사건 관련 용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시 분석 단계에서는 한중 언론사 간의 차이점 특히 한국어 대응어에 사용된 표현과 표기 방식을 살펴보고 나타난 번역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번역의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여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밝히고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분석

이 장에서는 추출한 정치외교용어를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 특정 행위나 사건 관련 용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에 나타난 한중 언론사 간의 차이점, 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한국어 대응어의 번역 유형을 도출하고 번역 고려사항, 즉 이렇게 번역하는 원인과 번역 효과를 분석하였다.

3.1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는 정치 민감성이 특히 강한 용어로서 국가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출발어 문화권과 도착어 문화권이 아닌 다른 나라 간의 정치 쟁점이 있는 영토나 영유권 용어를 번역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는 해당 용어의 번역에 국가의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에 자칫하면 두 나라 간의 분쟁에 휘말려 국제관계에서 난감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

7) YTN는 방송 뉴스에 속하고,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신문 뉴스에 속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페르시아만’의 영어 번역 예시를 통해 이러한 용어의 번역에 작용되는 요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란과 아라비아 간 영해권 쟁점이 있는 페르시아만은 각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아라비아에서는 ‘the Arab Gulf’라고 칭하고 이란에서는 ‘the Persian Gulf’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국과 유엔에서 모두 이를 ‘The Gulf’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에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엿볼 수가 있다. 중국은 양국과 모두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국 관계의 민감 사항인 영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번역을 통해 유엔과 같은 중립적인 정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井然[정엔] 2015: 85).

본고에서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에 대하여 중국의 영토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와 연관된 용어를 다룬다. 설정한 연구기간에 보도된 뉴스에서 추출한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는 총 10개이며, 이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여 분석한다.

<표 1>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

구분	한국어 대응어 양상 ⁸⁾	
南海 ⁹⁾	인민망	남중국해
	신화망	남중국해
	중국망	남중국해
	YTN	남중국해
	한겨레	남중국해
	동아일보	남중국해
獨島	인민망	1) 독도(일본명:타케시마) 2) 다케시마(한국명:독도)
	신화망	-10)
	중국망	1) 독도 2)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YTN	독도
	한겨레	독도
	동아일보	독도
釣魚島	인민망	다오위다오(釣魚島)
	신화망	다오위다오(釣魚島)
	중국망	1) 다오위다오 2) 다오위다오(釣魚島) 3) 조어도
	YTN	1)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2)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3)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한겨레	1)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2) 다오위다오(일본

		명 센카쿠열도
	동아일보	1)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2)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 3)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反中亂港	인민망	1) 반중난항(反中亂港) 2) 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3) 반중란항
	신화망	1) 반중란항(反中亂港·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2) 반중난항
	중국망	- 반중란항 1) 반중란항(反中亂港,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시키다) 2) 반중란항(反中亂港,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시킨다) 3) 반중란항(反中亂港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4) 반중란항(反中亂港·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5) 반중란항(反中亂港) 6) 반중란항 - 반중난항 1) 반중난항(反中亂港) 2) 반중난항(反中亂港,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시키다) 3) 반중난항
	YTN	-
	한겨레	1)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스럽게 하는 2) 반중란항(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3) ‘반중란항’(중국에 반대해 홍콩을 혼란케 한다) 4) 반중란항(反中亂港·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것)
	동아일보	1) 반중란항(反中亂港·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2) 반중란항(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3) 반중난항(反中亂港·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一國兩制	인민망	1)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2)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3) 일국양제(一國兩制)
	신화망	1)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2)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중국망	1) 일국양제 2)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3)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4)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YTN	1) 일국양제 2)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3) 한 국가 두 체제, 일국양제
	한겨레	1) 일국양제 2) 일국양제(1국가 2체제) 3)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4)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체제) 5)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일국양제(한국가 두체제)/일국양제 (한국가·두체제) 6)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동아일보	1)일국양제 2)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3) 일국양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3) 일국양제(한 나라, 두가지 제도) 4)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가 2체제) 5) 일국양제(한개 국가, 두가지 제도) 6) 일국양제(1국2체제)
港人治港	인민망	1)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2)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신화망	1)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2) 항인치항(港人治港) 3)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4) 항인치항(홍콩인의 홍콩 통치)
	중국망	1) 항인치항 2)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3)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의 홍콩 통치) 4)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에 의한 자치) 5) 항인치항(港人治港) 6)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7) 홍콩인의 홍콩 관리 8) 홍콩인이 홍콩 관리
	YTN	1)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2)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 3) 홍콩 사람들이 홍콩 사람을 직접 뽑아서 통치하는 항인치항
	한겨레	홍콩은 홍콩인들이 통치한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동아일보	1)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2)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3)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 4)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 5) 항인치항(港人治港) 즉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愛國者治港	인민망	1)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2) 애국자가 홍콩을 관리해야 한다 3) 애국자에 의한 홍콩 관리
	신화망	1)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2)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3) 애국자 홍콩 관리
	중국망	1)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2)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3)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YTN	1)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愛國者治港·애국자치항) 2) 애국자 통치(愛國者治港)
	한겨레	1)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2)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3)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
	동아일보	1)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다스려야 한다) 2)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다스린다(愛國者治港) 3) 애국자치항(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4)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
一个中國原則	인민망	하나의 중국 원칙
	신화망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망	‘하나의 중국’ 원칙
	YTN	‘하나의 중국’ 원칙
	한겨레	1) 하나의 중국 원칙 2)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
	동아일보	‘하나의 중국’ 원칙
兩岸	인민망	1) 양안(兩岸·대륙과 타이완) 2) 양안(兩岸: 대륙과 타이완)
	신화망	1) 양안 2) 양안(兩岸) 3) 양안(중국과 타이완) 4)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
	중국망	양안
	YTN	1) 양안 2) 대륙과 타이완 3) 양안(兩岸) 4)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5) 양안(중국 대륙과 대만을 표시하는 어휘)
	한겨레	1) 양안(중국·대만)/양안(중국·대만)/양안(중국과 대만) 2) 양안 3)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아일보	1) 양안 2)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3) 양안(중국과 대만)/양안(중국·대만)/양안(중국·대만) 4) 양안(兩岸)
加勒万河谷	인민망	자러완 계곡(加勒萬河谷·Galwan Valley)
	신화망	-
	중국망	갈완 계곡
	YTN	갈완 계곡
	한겨레	갈완 계곡
	동아일보	1) 갈완 계곡 2) 갈완(중국명 자러완) 계곡

‘南海’에 대하여 한중 언론사에서 모두 ‘남중국해’를 사용하고 있다. ‘南海’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리적 개념으로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인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지칭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영유권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중국의 영해인 남해를 말한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南海’를 가리킬 때는 ‘中國南海(The South Sea of China)’를 사용하고, 지리적 개념인 ‘南海’를 가리킬 때는 ‘南中國海(South China Sea)’를 사용해야만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일상 상황에서든 뉴스에서든 편리를 위해 ‘南中國海’를 가리킬 경우 ‘南海(남해)’라고 하고, 또한 ‘남중국해는

- 8) 각 뉴스 포털사이트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번역 양상을 제일 앞에 두었다.
- 9) 중국의 영유권과 관련된 개념, 즉 중국의 영해인 ‘南海’만을 다룬다. 영문 명칭은 The South Sea of China이고 남중국해(South China Sea)와 다른 개념이다.
- 10)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용어가 검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영토이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中國南海'를 지칭할 때도 '南海(남해)'를 사용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중국 사람들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南中國海(South China Sea)'를 '中國南海(The South Sea of China)'로 혼동하고 있다. 중국 세 언론사에서 '南海'를 '남중국해'로 번역한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치 입장을 감안할 때 '남중국해'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 언론사의 경우 '南海'에 대하여 모두 남중국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 양상에는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관여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 '남중국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26년 9월 10일에 동아일보 경제면에 있는 '今日天候(금일천후)'라는 뉴스에서 확인되었다. 그 이후에도 몇 건이 나타났으며, 1992년부터 사용빈도는 48건으로 급증된 양상이 보인다.¹¹⁾ 이와 관련하여 한중 수교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는 용어인 '獨島'와 '釣魚島'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도 살펴보겠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독도'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대응된 한자 '獨島'로 표기한다. 중국망에서 이에 대한 개입 없이 '독도'로 번역한 양상이 1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괄호에서 일본 명칭을 병기하는 번역 양상이 10건으로 확인되었다. 인민망에서 독도와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독도를 먼저 표기한 뒤 괄호에서 일본 명칭을 삽입한 번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라는 표기는 1건만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釣魚島'에 대하여 중국 언론사에서 모두 음차역을 하여 '다오위다오'로 번역하였으며, 한국 언론사들의 표기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본 명칭인 센카쿠와 중국 명칭인 다오위다오를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동아일보에서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한자 병기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대응어 양상에는 각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자국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다른 국가 간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명칭을 병기함으로써 중립적인 정치 입장을 취한 것이다. 번역자 역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의 영향을 받아 이를 번역 고려사항으로 삼아서 번역을 한 것

11)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키워드검색'에서 '남중국해'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이다.

이다.

중국 3대 언론사에서 모두 음차번역을 택하였지만 표기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보인다. 인민망과 신화망, 그리고 중국망 2017년 이전의 뉴스에서는 ‘다오위다오(釣魚島)’처럼 음차번역 후 한자를 괄호 처리하여 삽입하였다. 그러나 중국망에서는 2020년부터¹²⁾ 한자의 삽입 없이 음차역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에 관습적으로 붙어 있던 한자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자들이 해당 번역어에 점점 익숙해진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한국은 한자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자를 병기하면 독자들이 해당 용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해당 용어가 한국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음차번역만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면 한자 병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밖에 중국망에서 2014년에 ‘조어도’로 번역한 뉴스는 2건이 확인되었다. ‘조어도’는 ‘釣魚島’와 대응된 한자어로서 다오위다오의 옛날 한국어 표기이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시대적인 번역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명이나 지명에 대한 번역은 과거에 자주 사용하던 한자어보다 음역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는 번역자가 번역의 시대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이 작용한 번역 양상으로 분석될 수가 있다. 다만, ‘타케시마’와 ‘다케시마’라는 두 가지 번역어에 표기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국어국립원 외래어 표기법 중 일본어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어두에는 거센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역의 시대적인 현상이 드러난 용어에는 ‘一個中國原則’, ‘反中亂港’, ‘愛國者治港’, ‘港人治港’도 있었다. ‘一個中國原則’은 중국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에서 모두 축어역을 하였다. 반면, ‘反中亂港’과 ‘愛國者治港’은 한국 언론사와 중국 언론사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번역 양상이 드러났다. ‘一個中國原則’이라는 개념은 1950년부터 생긴 것이므로 한국 독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런 판단 하에 번역자가 추가 설명 없이 축어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反中亂港’과 ‘愛國者治港’이 도착어 독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를 역주를 달아주거나 풀어서 번역한 것이다.¹³⁾ ‘港

12)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용어의 번역 양상이 검색되지 않았다.

1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로 확인한 결과 ‘反中亂港’은 1999년 이전에는 조선일보에서 ‘反華亂港(반화난항)’의 형식으로 한 번만 나타났다.

人治港'에 대한 번역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망을 제외한 중국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에서 모두 이를 풀어서 문장 내 자연스럽게 삽입하거나 주석을 병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취하였다. '港人治港'라는 용어는 한국 독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기에 이를 '항인치항'으로 한자어 번역만을 하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번역자는 이와 같은 판단에서 이를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인치항'과 '애국자치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한국 언론사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사에서도 '통치', '관리', '다스림'이라는 다양한 해석 양상이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통치'는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주로 원수(元首)나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할 때 사용된다. 이는 '관리'와 '다스림'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중국의 정치 입장에서 볼 때 홍콩은 중국에 속하므로 하나의 정권으로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항인치항' 및 '애국자치항'에서의 '치'는 '통치'가 아니라 '관리'나 '다스림'이라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치'라는 해석은 중대한 번역 오류이라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표기상의 오류도 눈에 띄었다. '反中亂港'의 경우, 중국 언론사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사인 동아일보에서도 '반중난항'과 '반중란항'이라는 두 가지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음 법칙에 의하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반중' 뒤에 '란'을 붙여서 쓸 경우 '亂'의 본음대로 표기해야 한다. 즉 '반중란항'으로 표기해야 옳은 것이다. 인민망에서 '반중난항'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반중란항'으로 표기한 양상은 1건만 확인되었다. 신화망에서는 '반중란항'과 '반중난항'이 각각 4건과 3건, 중국망에서는 '반중란항'과 '반중난항'이 각각 10건과 9건으로 검색돼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언론사의 번역에서 표기상의 오류가 매우 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한국 언론사에서도 '반중난항'이라는 표기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反中亂港'을 의미 단위대로 분석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反中亂港'을 의미 단위대로 한국어로 적으면 '반중-난항'이 되어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인 '반중난항'으로 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의미 단위대로 적으면 '반중'과 '난항'을 띄어서 '반중 난항'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띄어서 쓸 경우 '반중 난항'이 적절한 표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란'으로 표기해야 옳은 표기가 된다. 이러한 표기

오류는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한국인들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한국어 어문 규범은 번역자의 언어 실력을 반영하고 번역 신뢰성과 직결되므로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오류는 번역자들에게 번역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하위 요소인 언어 지식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구두점과 숫자의 사용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양안(兩岸·대륙과 타이완)’과 ‘양안(兩岸: 대륙과 타이완)’, ‘반중란항(反中亂港,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시키다)’과 ‘반중란항(反中亂港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시키다)’,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등은 구두점과 숫자의 정확성 및 일관성에 있어 부적절한 번역이다. 한글 맞춤법 부록에서 문장부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쌍점(:) 및 가운데점(·)에 대한 사용은 모두 부적절하며¹⁴⁾ 이를 대신 쉼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적절해 보인다. 문장부호의 정확한 사용은 번역자의 실력과 지식 함양을 드러내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번역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된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글자의 번역뿐만 아니라 문장부호와 같은 주변요소의 번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번역자로서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위에서 제시한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의 한국어 대응어에 나타난 번역 유형을 정리해 보겠다. 직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음차번역이나 한자어로 번역한 후 한자를 괄호에서 병기하는 형식이다. ‘다오위다오(釣魚島)’, ‘일국양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 ‘양안(兩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음차번역이나 한자어로 번역한 후 괄호에서 한자와 역주를 동시에 달아주는 형식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양안(兩岸·대륙과 타이완)’ 등이 있다. 셋째, ‘항인치항(홍콩인의 홍콩 통

14) 한국어 어문 규범 부록에 의하면 쌍점(:)은 첫째,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둘째,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셋째,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분할 때 쓴다. 넷째, 의존 명사 ‘대(對, Versus)’가 쓰일 자리에 쓴다. 가운데점(·)은 첫째,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둘째,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다만, 이때는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셋째,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이때는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치)’처럼 음차번역이나 한자어로 번역한 후 괄호에서 역주만 달아주는 방식이다. 넷째, 용어의 뜻을 풀어서 문장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음차번역에 한국어 한자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자러완 계곡’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언론사와 달리 한국 언론사에서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처럼 뜻을 관형어로 처리하여 한자어와 한자 병기 앞에 추가하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 언론사가 중국 언론사와 구별되는 점이다.

3.2 특정 행위나 사건 관련 용어

양명썩(楊明星 2014)은 낭랑하고 리듬감이 강한 사자성어를 사용하는 것과 은유법 등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밝혔으며, 외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어휘를 외교 사상이나 이념을 설명하는 어휘¹⁵⁾ 및 대외 정책을 설명하는 어휘¹⁶⁾와 함께 정치외교용어의 하위 부류로 보았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즉 외교적 사건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어휘에는 보통 중국의 외교 태도와 감정이 수반되어 있다. 이러한 어휘는 국제관계에 있어 특히 민감하고 본 연구에서 정한 정치외교용어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행위나 사건을 묘사하는 용어를 추출하여 이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여 분석한다.

15) 예컨대 ‘人類命運共同體(인류운명공동체)’, ‘同舟共濟(동주공제)’

16) 예컨대 ‘一帶一路(일대일로)’

〈표 2〉 특정 행위나 사건 관련 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

구분		한국어 대응어 양상
螳臂當車	인민망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 것)
	신화망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
	중국망	1) 분수도 모르는 무모한 행동 2)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것
	YTN	1)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의미의 ‘당랑거철’/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는 당랑거철 2) 당랑거철의 무모함 3) 거대한 수레에 맞서는 무모한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사마귀 4)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격으로 당랑거철의 어리석음
	한겨레	1) ‘수레에 맞서는 사마귀’라는 뜻을 가진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에 맞선다는 의미의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당랑거철 2) 당랑거철 3) 당랑거철(螳螂拒轍) 4) 당랑거철(수레를 멈추겠다고 앞발을 든 사마귀)
	동아일보	1)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과 대적한다는 사자성어인 ‘당랑거철’(螳螂拒轍) 2)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섬) 3) 당랑거철(螳螂拒轍) 4)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고 풀이되며, 본인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강자에게 덤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5)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指鹿爲馬	인민망	1) 지록위마(指鹿爲馬) 2)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진실을 가리는 거짓) 3) 지록위마
	신화망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다
	중국망	지록위마(指鹿爲馬)
	YTN	1)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 2)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3) 지록위마(指鹿爲馬) 4) 지록위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겨레	1)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2)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3)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는 뜻으로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 4) ‘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름)
	동아일보	1)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2) 지록위마(指鹿爲馬) 3) 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 4)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지록위마

		指鹿爲馬) 5) 지룩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顛倒黑白	인민망	1) 흑백을 전도 2) 흑백을 뒤집기
	신화망	1) 흑백을 전도 2) 본말이 전도됨 3) 사실을 왜곡
	중국망	흑백을 전도
	YTN	1) 흑백을 전도 2)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
	한겨레	흑백을 전도
	동아일보	흑백을 전도
扣帽子 ¹⁷⁾	인민망	1) 오명을 씌우기 2)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3) 불명예를 주기
	신화망	오명을 씌우기
	중국망	1) 누명을 덮어씌우기/씌우기 2) 오명을 씌우기
	YTN	누명: 1)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고 2)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복귀할 생각 오명: 1) '황사 발원지'라는 오명 2) '집단 수용소'라는 오명
	한겨레	누명: 억울한 누명 오명: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동아일보	누명: 1) 억울한 누명 2)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오명: 1)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2)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오명
倒打一耙	인민망	적반하장
	신화망	적반하장
	중국망	1) 적반하장 2)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도타일파'(적반하장과 같은 뜻)
	YTN	1) 적반하장 2)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한겨레	적반하장
	동아일보	1) 적반하장 2)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도타일파(倒打一耙·적반하장이라는 뜻)'
甩鍋	인민망	1) 책임을 전가하기 2) 책임 떠넘기기 3) 속죄양으로 삼기
	신화망	1) 책임을 전가하기 2) 책임 떠넘기기
	중국망	1) 책임을 전가하기 2) 책임 떠넘기기 3) 속죄양으로 삼기
	YTN	1) 책임을 떠넘기기 2) 책임을 전가하기 3)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기
	한겨레	1) 책임을 떠넘기기 2) 책임을 전가하기 3)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기
	동아일보	1) 책임을 떠넘기기 2) 책임을 전가하기
長臂管轄	인민망	1) '롱암 법'(Long-arm jurisdiction) 2) '롱암'(long-arm)

		관할
	신화망	1) ‘롱암법’ 2) 확대관할법
	중국망	확대관할법(long arm jurisdiction)
	YTN	1) ‘확대관할법’(역외자에 대한 관할권 적용) 2) 확대관할
	한겨레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미국의) ‘롱암법’
	동아일보	1)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롱암(long-arm)법’ 2) ‘롱암(long arm·관할권이 없는 다른 지역까지 사법 관여를 확대하는 것)법
搬起石頭 砸自己的 脚	인민망	1)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게 될 것 2) 자업자득
	신화망	1) 제 발등을 찍은 꼴 2) 자업자득
	중국망	1) 제 발등을 찍은 꼴 / 제 발등을 제가 찍게 될 것 2) 자업자득
	YTN	1) 제 발등을 찍기 2) 자기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
	한겨레	제 발등을 찍기
	동아일보	1) 제 발등을 찍기 2) 제 발등을 찍은 꼴
窺訪	인민망	방문
	신화망	1) 방문 2) 가다
	중국망	방문
	YTN	방문
	한겨레	방문
	동아일보	방문

중국 정치외교용어는 속담, 사자성어 등을 빌려 정치 입장과 이념 등을 은유하는 것이 특징이며, 외교 상황에서 사용하는 은유는 구체적인 실체를 통해 추상적인 외교적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외교 이념이나 태도,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楊明星·趙玉倩[양밍씽·조위치안] 2020: 151-152). <표 2>의 ‘螳臂當車’, ‘指鹿爲馬’, ‘顛倒黑白’, ‘扣帽子’, ‘倒打一耙’, ‘甩鍋’, ‘長臂管轄’, ‘搬起石頭砸自己的脚’, ‘窺訪’은 모두 은유법이 사용된 용어들이다. 이들은 각각 ‘사마귀’, ‘사슴과 말’, ‘흰색과 검은색’, ‘모자’, ‘갈퀴’, ‘솥’, ‘긴 팔’, ‘돌’, ‘쥐’ 등 실체를 통해서 외교 입장이나 상대 국가의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주로 미국이 중국에게 사실이 아닌 누명을 씌울 경우 중국은 미국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 용어를 쓴다. 한국 언론사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용 양상이 찾기 어려워 일반 상황에서의 누명과 오명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은유법은 중국 정치외교용어를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치 상황에서 사용하는 은유 표현에 있어 두 언어는 같은 실체를 공유하고 그 실체에 담는 의미도 같은 경우 도착어 독자들이 출발어의 은유 표현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내포된 정치적인 함의도 추측해 낼 수 있다. 반면에 두 은유 표현이 같은 의미를 전달하나 서로 다른 실체를 사용하는 경우 도착어 독자들이 그 실체에 담는 내포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으며, 정치적인 함의를 추측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搬起石頭砸自己的脚’은 직역하면 ‘돌을 들어 자기의 발등을 찍는다’의 뜻이고 외교 상황에서 남을 해치려다가 결국은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¹⁸⁾라는 속담이 있으나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돌’과 다른 실체인 ‘도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한국 사람은 ‘돌’이라는 실체를 통해 ‘도끼’를 사용한 위 속담을 쉽게 연상할 수 없으며, 돌을 사용한 ‘搬起石頭砸自己的脚’라는 속담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속담에 대한 중국 언론사의 번역을 살펴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사자성어로 번역한 양상이 몇 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 발등을 찍은 꼴’과 같이 표층적 의미만 번역하였다. 한국 언론사의 경우 YTN을 제외하고 모두 표층적 의미만을 번역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돌이라는 실체를 사용한 이 속담에 대해 한국 독자들이 내포된 정치적 함의를 추측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표층적 의미만 번역함으로써 외교 상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를 ‘자업자득’이나 ‘자기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로 번역함으로써 정치적인 함의를 명시화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처럼 표층적 의미만을 번역하고 내포된 정치적 함의를 반영해 내지 못하는 것은 ‘螳臂當車’ 등 사자성어의 한국어 대응어에서도 확인되었다. 인민망은 단지 용어의 표층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쳤으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은유적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였다. 한국 언론사의 일부 대응어 양상에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은유법을 사용하는 중국 정치외교용어를 번역할 때 표층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포적 의

18) 우리말샘에서 이를 ‘남을 해칠 요량으로 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해롭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해석하였다.

미를 명시화함으로써 정치적 함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螳臂當車’, ‘指鹿爲馬’, ‘倒打一耙’와 같은 사자성어의 한국어 대응어에서 한중 언론사 간의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한국 언론사와 중국 언론사에서 모두 역주나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극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언론사와 달리 한국 언론사에서 사자성어 앞에 수식 관형사절을 추가하는 것, 즉 사자성어에 대한 해석을 관형어로 처리하여 사자성어를 수식하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의미의 ‘당랑거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 예시이다. 이는 한중 언론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은유와 사자성어를 자주 사용하는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특성으로 인하여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顛倒黑白’의 한국어 대응어를 살펴보면 신화망에서 이를 ‘본말이 전도됨’으로 번역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본말전도는 사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여 초점이 핵심을 벗어나고 결국에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실패한 상황에서 쓰인다. 이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의미의 ‘顛倒黑白’과 전혀 다른 의미이다. ‘扣帽子’의 번역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는 번역자가 ‘누명’과 ‘오명’을 구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이다. 한국 언론사에서 ‘누명’과 ‘오명’에 대한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누명’은 자주 ‘억울하다’와 함께 사용되며, ‘오명’은 ‘... 라는 오명’의 형식으로 자주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오명’은 더러워진 이름이나 명예라는 뜻이고 ‘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라는 뜻이다. 두 단어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따라 구분된다. ‘누명’에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반면 ‘오명’은 확실하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이름이나 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現代漢語詞典(현대중국어사전)에서 ‘扣帽子’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사전 조사나 분석도 없이 경솔하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중국 외교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사실이 아닌 억울한 평판이나 죄를 뒤집어씌울 때 ‘扣帽子’를 사용하곤 하였으며, 이는 ‘帽子(모자)’의 사전적 의미에다 ‘사실이 아닌 누명’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¹⁹⁾ 그러므로 사실이 아닌 평판이나 죄를 지칭할

19) 외교 상황에서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정치적인

경우 오명이 아닌 누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오류가 아니지만 부정확한 표현도 확인되었다. 신화망과 중국망, 그리고 YTN에서 ‘長臂管轄’을 ‘확대관할법’으로 표현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長臂管轄’은 영어 ‘Long arm jurisdiction’을 직역한 것이다. 이 용어는 미국 민사소송법의 한 개념으로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역외자에게 재판관할권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관할을 역외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외교 상황에서는 이를 ‘長臂(긴 팔)’로 직역하고 그 뜻을 국제관계에 확대하여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를 ‘확대관할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대’는 ‘넓혀서 크게 함’이라는 뜻으로 이 용어의 원래의 뜻, 즉 미국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더 부합한다.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개입하는 상황에서 ‘확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하여 ‘확대’에 비해 긴 팔로 다른 국가의 내정까지 간섭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경우 영어의 표현인 ‘롱암(long arm)’을 그대로 차용하면 그 뜻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竄訪’을 ‘방문’으로 표현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 ‘竄’은 적군과 악당, 짐승, 쥐 등이 도망치거나 돌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한다. 미국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혐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방문이라는 의미의 ‘訪’에 ‘竄’을 결합한 것이다(楊明星·李志丹[양명성·리지단] 2015: 89). 즉, 중국은 미국의 대만 방문 행위가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竄’을 썼던 것이다. 따라서 ‘竄’의 의미를 누락하고 단지 ‘방문’으로 표현한 것은 중국의 정치적 입장 및 감정을 전달하지 못했다. ‘訪’의 의미만 번역하였을 뿐 ‘竄’에 내포된 정치적 함의를 번역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감정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번역은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제안 번역으로는 ‘부당한 방문’을 들 수가 있다. 한국 언론사도 ‘방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표현을 비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양상은 번역자에게 정치외교 용어를 번역할 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면서 번역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태도 등을 전달한다는 것은 외교 용어의 특징이다(楊明星[양명성] 2014: 103-104).

이들 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을 살펴보면 그 번역 유형은 직역을 제외하고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자어로 직역한 후 괄호에서 한자와 역주를 다는 형식이다.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 것)’이 그 예시이다. 둘째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이 한자어 번역과 한자를 병기하는 형식이다. 셋째는 용어 앞에 이를 해석하는 긴 관형사절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는 특히 사자성어의 한국어 대응어에 많이 사용되는 번역방법이다. 넷째, 용어의 뜻을 풀어서 문장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형식으로 ‘분수도 모르는 무모한 행동’과 ‘책임 떠넘기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발어에서 사용된 실체를 보류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혹은 새로운 실체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혹백을 전도하기’와 ‘누명을 뒤집어씌우기’, ‘속죄양으로 삼기’는 각각 실체 보류, 실체 삭제, 실체 대체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다섯째는 같은 의미를 지닌 한국어 고유 표현이나 속담, 혹은 한국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搬起石頭砸自己的脚’을 ‘제 발등을 제가 찍게 될 것’ 혹은 ‘자업자득’으로, ‘倒打一耙’를 ‘적반하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에 제시한 다섯 가지 번역 유형 중 두 번째 유형은 가장 소극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指鹿爲馬(지록위마)’는 보다 유명한 사자성어로 해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求同存異(구동존이)’와 같은 외교 정책에 관한 용어는 일반 한국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정치외교용어의 특성과 뉴스 대상 독자들의 천차만별한 지식수준을 고려했을 때 두 번째 번역 유형이 도착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효 번역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번역방법보다는 괄호에서 주석을 함께 달아주거나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 앞에 긴 관형사절을 추가하는 방법, 혹은 한국 언론사처럼 해석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단, 가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출발어의 문화 요소를 살리는 차원에서 수식 관형사절을 추가하는 것과 해석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방법으로 사료된다. 가령 ‘螳臂當車’를 ‘당랑거철(螳螂拒轍)’로 번역한 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가로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처럼 해석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처럼 관형사절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번역방법이다. 이런 번역은 독자들이 문맥을 통해 해당 용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이해 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 단, 문장이 길어져 간결한 표현을 추구한다는 뉴스의 특징과 어긋나는 단점이 있다. 이때 구체적인 사용 상황에 따라 한국어의 속담이나 고유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螳臂當車’를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번역하면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 독자들이 이를 이해하는 데 중국 독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어떤 번역방법을 사용하여 정치외교용어의 정치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번역자가 선택한 번역방법은 최종 수신자가 해당 용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나아가 외교 주장이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종 수신자의 이해 용이성과 정치적 함의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최적의 번역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번역자에게 극히 요구된 점이다.

4. 논의 및 결론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에 나타난 한중 언론사 간의 차이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의 경우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한국어 대응어의 선택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번역 혹은 사용한 것이다. ‘南海’, ‘獨島’, ‘釣魚島’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 대응어의 번역 유형에 있어 또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와 특정 행위나 사건 관련 용어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중국 언론사와 달리 한국 언론사는 용어 앞에 수식 관형사절을 추가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또한, 동아일보의 당량거철에 대한 사용 양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국 언론사에서 용어에 대한 해석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또한 중국 언론사와 구별되는 점이다.

또한, 중국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

견하였다. 첫째, 표기 오류와 문장부호의 잘못된 사용을 비롯한 한국어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 표기 오류로는 ‘다케시마’와 ‘타케시마’를 혼용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위반한 것과 ‘반중란항’과 ‘반중난항’을 혼용하는 한글 맞춤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은 역자의 언어적 실력과 함양을 드러내는 만큼 번역의 품질 및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번역품질을 향상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면에서 번역 능력의 하위 요소인 언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외교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오류를 한중 언론사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항인치항’과 ‘애국자치항’의 ‘치’자에 대한 해석은 ‘통치’로 잘못 해석하였다. ‘통치’보다 ‘관리’와 ‘다스림’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통치 행위가 하나의 정권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통치’라는 해석이 중국의 정치 입장에 배치되는 표현이다. 이밖에 ‘顛倒黑白’, ‘扣帽子’의 한국어 대응어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다.

셋째, 오류가 아니지만 부정확한 표현이 빈번히 나타났다. 신화망과 중국망, YTN에서 ‘長臂管轄’을 ‘확대관할법’으로 번역함으로써 외교 상황에서 지칭하는 의미, 즉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과 의미상의 거리가 생겼다. 또한, ‘竄訪’의 번역도 정확하지 않다. ‘竄’에 대한 번역을 누락한 탓에 중국 측의 혐오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넷째, 표층적 의미만을 해석하고 내포된 정치적 함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螳臂當車’를 ‘당량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 것)’로 번역한 것처럼 표층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쳤으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행동한다’라는 은유적 의미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용어에 내포된 정치적 태도 및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釣魚島’, ‘一個中國原則’, ‘反中亂港’ 등 용어에서 번역의 시대적인 양상을 발견하였다. 이런 시대적인 번역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착어 독자들이 해당 용어에 대한 숙지 정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시간이 지나 해당 용어가 도착어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 음차번역만 혹은 직역을 하며, 해당 용어가 도착어 독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면 한자를 병기하거나 주석을 달아주거나 풀어서 설명하는 등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로 다양한 한국어 대응어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어 대응어 양상들은 정치외교용어의 번역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정치외교용어 특히 영토나 영유권 관련 용어를 번역할 때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맞춰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치적 태도와 감정을 전달하는 정치외교용어의 경우 용어에 담는 정치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층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치는 번역을 삼가야 한다. 셋째, 정치외교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오해할 여지를 줄이도록 번역 전에 출발어 용어의 어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선택한 도착어 어휘의 의미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번역의 시대적인 양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착어 독자들의 이해 용이성과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번역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래어 표기와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장부호의 정확한 사용은 번역 신뢰도와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민감한 정치외교용어의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더더욱 안 된다.

이상 본 연구는 정치외교용어를 ‘정치 및 외교 상황에서 민감하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용어’로 새로 규정하고 중국어 정치외교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양상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중 언론사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어 대응어의 번역 유형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들 한국어 대응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밝히고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치외교용어의 중-한 번역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정치외교용어의 정치적 함의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번역 유형과 번역상의 여러 문제점들은 향후 진행될 정치외교용어의 중-한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석한 정치외교용어가 양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다량의 정치외교용어 예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외교용어의 한-중 번역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이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한식 (2010) 「정치적 용어에 대한 번역자의 개입 양상 연구—언론사의 한-일 번역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82: 43-54.
- 문윤희 (2010) 「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번역전략 연구—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창숙 (2022) 「한·중 교육부 소개 텍스트의 어휘 대조 연구—가짜 대응어(false friends)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60: 295-315.
- 조신 (2021) 「한·중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과 ‘人民’의 번역을 위한 기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2021(5): 165-178.
- 최영란, 유곤 (2021) 「중국 외교 언어의 정확성과 모호성에 대한 번역 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 20: 161-186.
- 최진호, 박영흠 (2022)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 고양: 재원프린팅.
- 楚行軍 [Chu, Xingjun] (2019) 「“政治等效”視野下中國特色政治話語英譯研究—以“打鐵必須 (還需) 自身硬”英譯為例」 [A Study of the Translation of Chinese Political Language from Political Equivalence Theory Perspective: Taking the Example of “Datie Bixu (Haixu) Zishen Ying”], 『陰山學刊』 [Yinshan Academic Journal] 32(4): 36-39.
- 楚行軍 [Chu, Xingjun] (2020) 「“政治等效”視野下“人類命運共同体”英譯研究」 [A Study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ren lei ming yun gong tong ti”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quivalence Theory], 『語文學刊』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40(5): 92-97.
- 董蒙娜 [Dong, Mengna] (2011) 「從“歸化和異化”角度分析中國特色政治詞匯的翻譯」 [Translation of the Political Vocabula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rom China Daily], 『吉林省教育學院學報』 [Journal of Educational Institute of Jilin Province] 27(6): 74-76.
- 郭耀軍 [Guo, Yaojun] (2011) 「外交術語的翻譯及對外傳播研究」 [A Study of the Translation and Foreign Dissemination of Diplomatic Terms], 『江西電力職業技術學院學報』 [Journal of Jiangxi Vocational and Technical College of Electricity] 34(3): 117-118.

- 姜嘉慧, 關榕珍 [Jiang, Jiahui and Rongzhen Guan] (2018) 「“政治等效”視角下外交新詞的英譯研究」 [English Translation Study of New Diplomatic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quivalence], 『重慶第二師範學院學報』 [Journal of Chongqing University of Education] 31(6): 50-53.
- 井然 [Jing, Ran] (2017) 「政治等效視角下禁忌語的語言特征分析」 [Analysis of Linguistic Features of Taboo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quivalence], 『長江叢刊』 [Yangtze River Series] 27: 85.
- 林攀龍 [Lin, Panlong] (2021) 「“政治等效”理論下的外交部網站中國特色詞匯英譯策略」 [English Translation Strategy of Chinese Characteristic Vocabulary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under the Theory of “Political Equivalence”], 『決策探索』 [Policy Research & Exploration] 2: 59-60.
- 李美涵, 段成 [Li, Meihan and Cheng Duan] (2015) 「“政治等效”框架下的中國政治語言翻譯策略研究」 [A Study of Translation Strategy of Chinese Political Language under the Frame of Political Equivalence Theory], 『太平洋學報』 [Pacific Journal] 23(3): 97-104.
- 龍新元, 李秋霞 [Long, Xinyuan and Qiuxia Li] (2020) 「“政治等效+認知趨同”: 認知翻譯觀視閥下的政治文本翻譯研究」 [“Political Equivalence + Cognitive Consonance”: A Study of Translation of Political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Translatology], 『天津外國語大學學報』 [Journal of Tianjin Foreign Studies University] 27(5): 104-120.
- 任東升, 李秀妹 [Ren, Dongsheng and Xiumei Li] (2021) 「基于“政治等效”的外交話語隱喻英譯策略—以2019年外交部例行記者會發言爲例」 [On Strategies for Interpreting Metaphors in Diplomatic Discourse for Political Equivalence: A Case Study of Chinese Foreign Ministry’s 2019 Regular Press Conferences], 『當代外語研究』 [Contemporary Foreign Languages Studies] 3: 84-95.
- 孫毅, 曾昕, 郝學宏 [Sun, Yi, Xin Zeng and Xuehong Hao] (2016) 「項目管理模式理論視閥下外交新聞翻譯實踐述略」 [An Account of the Diplomatic News Translation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ject

- Management Theory], 『上海翻譯』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6: 75-82.
- 王平興 [Wang, Pingxing] (2016) 「“政治等效”翻譯：臆想還是現實？」 [“Political Equivalence” Translation: Illusion or Reality?], 『中國翻譯』 [Chinese Translators Journal] 1: 91-95.
- 吳靜 [Wu, Jing] (2014) 「“政治等效”的中國政治新詞翻譯策略解析」 [Analysis of Supplement and Omission of Chinese Political Neologisms Translation], 『蘭州文理學院學報 (社會科學版)』 [Journal of Lanzhou University of Arts and Science (Social Sciences)] 30(1): 95-98.
- 楊紅燕, 姚克勤 [Yang, Hongyan and Keqin Yao] (2017) 「近二十年漢語政治新詞新語翻譯研究述評」 [A Review of Translation Studies of Chinese Political Neologisms and Neologisms in the Past Twenty Years], 『人文雅志』 [The Journal of Humanities] 12: 61-67.
- 楊明星 [Yang, Mingxing] (2014) 「中國外交新詞對外翻譯的原則與策略」 [Principles and Strategies for Foreign Translation of Chinese New Diplomatic Words], 『中國翻譯』 [Chinese Translators Journal] 3: 103-107.
- 楊明星, 閔達 [Yang, Mingxing and Da Yan] (2012) 「“政治等效”理論框架下外交語言的翻譯策略—以“不折騰”的譯法為例」 [Translation Strategies of Diplomatic Languages under the Frame of “Political Equivalence” — Taking the Translation Method of “bu zhe teng” as an Example],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Journal of PLA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35(3): 73-77.
- 楊明星, 張琰 [Yang, Mingxing and Yan Zhang] (2020) 「中英外交翻譯中“政治等效”與話語平等辯証關係分析」 [On “Political Equivalence” and Discourse Equality in Sino-British Diplomatic Translation], 『上海翻譯』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5: 24-29.
- 楊明星, 趙玉倩 [Yang, Mingxing and Yuqian Zhao] (2020) 「“政治等效+”框架下中國特色外交隱喻翻譯策略研究」 [Strategies for Translating Diplomacy-serving Metaphor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中國翻譯』

[Chinese Translators Journal] 1: 151-190.

楊明星, 李志丹 [Yang, Mingxing and Zhidan Li] (2015) 「“政治等效”視野下
“竄訪”譯法探究」 [A Study of the Translation of “cuan fang”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quivalence], 『中國翻譯』 [Chinese Translators
Journal] 5: 88-92.

袁森, 馬曉宇 [Yuan, Sen and Xiaoyu Ma] (2020) 「對等理論視角下外宣術語
翻譯－以中共中央編譯局發布的外宣術語為例」 [Translation of Foreign
Publicity Terms from the Perspective of Equivalence Theory – A Case
Study of Foreign Publicity Terms Issued by the Central Compilation and
Translation Bureau of the CPC Committee], 『莆田學院學報』 [Journal
of Putian University] 27(6): 86-89.

張慶彬, 王振華 [Zhang, Qingbin and Zhenhua Wang] (2019) 「“政治等效”与“評
价等效”: 中國外交表態詞的評價機制和翻譯原則」 [“Political Equivalence”
and “Appraisal Equivalence”: Evaluation Mechanism and Translation
Principles of Chinese Diplomatic Attitudinal Expressions], 『浙江大學學
報 (人文社會科學版)』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9(5): 157-166.

<인터넷 자료>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morms.korean.go.kr/main/main.do>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바이두 백과사전 <https://baike.baidu.com/>

일본대백과사전 <https://kotobank.jp/>

국립국어원 인터넷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do>

人民网 [인민망] (2016) 「南海小常識」 [남해에 관한 상식], 『科普中國』
[China Science Communication] 2023년 5월 7일 검색. Available at
www.kepuchina.cn/sy/yw/201607/t20160713_13218.shtml

<분석 사이트>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신화망 한국어판 <http://kr.news.cn/index.htm>

중국망 한국어판 <http://korean.china.org.cn/>

YTN <https://www.ytn.co.kr/>

한겨레 <https://www.hani.co.kr/>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Counterparts of Chinese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Linlin Yu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counterparts of Chinese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used in Chinese and Korean news media.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are redefined as sensitive terms that may impact international relations or generate controversy. Following this definition, the study extracted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from Korean versions of Chinese media websites and classified them into two categories. It then examined the types of Korean counterparts and discussed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ir translations.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translation quality of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at a country's political stance influences the selection of Korean equivalents, and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types of Korean counterparts used between Korean and Chinese news media. Moreover, various problems were identified in these Korean counterparts, such as incorrect use of punctuation, spelling errors, and inappropriate expressions. The study examined a variety of translation techniques that can effectively convey the nuanced meanings of political terms. It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future research on Chinese-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Keywords: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counterparts, translation of political and diplomatic terms, diplomatic translation, political translation

주제어: 정치외교용어, 대응어, 정치외교용어 번역, 외교 번역, 정치 번역

원림림

한국외국어대학교 KFLT(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박사과정 수료

yll9369@naver.com

관심 분야: 정치 번역, 자막 번역, 번역 교육

논문 투고: 2023년 5월 10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6월 5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6월 14일

게재 확정: 2023년 6월 22일